

위메프, '온누리투어 기획전' 열어...최대 20만원 할인 혜택
위메프가 7월2일까지 '온누리투어 기획전'을 연다. 7~8월 여름 성수기에 출발 가능한 상품부터 10월 연휴에 출발하는 얼리버드 상품까지 50여개 여행상품을 다채롭게 선보인다. 동남아, 홍콩·마카오, 일본, 유럽과 미주 지역 등 8영역도 넓다. 또 즉시할인을 통해 최대 20만원까지 추가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새정부 통신비 정책에 통신업계 반발

국정위, 22일 통신비 인하 발표
'요금할인 25%로 상향' 포함 유력
통신업계 "제도 도입 취지 어긋나"



새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선택약정할인 25% 상향'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료 폐지'에선 한발 물러선 것이지만 통신업계는 "기본료 폐지만큼이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어 또 한번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택약정할인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을 포함한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반발이 거셌던 기본료 폐지는 제외됐다.

선택약정할인이란 약정 기간 동안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자급제폰이나 중고폰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지원금을 받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시행 초기엔 가입자가 많지 않았으나, 2015년 할인율을 12%에서 20%로 올린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었다.

문제는 할인율을 올릴 경우 가입자가 더 늘어나고, 그에 따른 매출 감소 확대가 불가피한 통신업계가 기본료 폐지만큼이나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통신업계는 특히 할인을 상향한 단통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은 소비자 차별 방지를 위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인 만큼 현재로서는 할인을 더 높일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20%로 올

리면서 이미 선택약정할인 이용자들이 공시지원금을 받은 이용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할인율을 더 올리면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공시지원금 제도도 무력화한다는 설명이다. 선택약정할인으로 소비자가 몰릴 경우 통신기업의 돈으로 지원금이 없는 애플같은 글로벌 제조사들의 제품 판매에 기여하는 모순을 가져올 것이라 우려도 나온다. 재원을 제조사와 분담하는 지원금과 달리 선택약정할인은 통신기업이 모두 부담한다. 업계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을 임의조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 재산권 및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통신사업자협회(KTOA) 등 통신업계는 정부의 선택약정할인을 상향 움직임에 대해 법무법인과 함께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경제현장.jpg

"고급 수제 맥주, 편의점에서 즐기세요."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고급 수제 맥주인 '플래티넘 에일 맥주' 2종 '페일 에일'과 '화이트 에일'을 내놓았다. '페일 에일'은 에일맥주 발효 방식에 충실한 상품답게 깊은 맛과 짙은 향이 일품이며, '화이트 에일'은 밀맥주 스타일로 과일향과 크리미한 바디감이 특징이다. 모델들이 21일 세븐일레븐 소공점에서 '플래티넘 에일 맥주'를 소개하고 있다.

정정욱 기자·사진제공 | 세븐일레븐

기아 소형 SUV 스톤, 유럽서 선전포고

자신감 바탕으로 유럽서 먼저 실물 공개
국내는 이달 말 공개 후 7월부터 판매



기아차의 소형 SUV 스톤이 유럽 시장에서 먼저 실물을 공개했다. 전체적으로 속도감이 느껴지는 역동적인 디자인을 지녔고, 경쟁 모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준다.

사진제공 | 기아자동차

'스토닉, 유럽에서 먼저 실물 공개'. 현대차 코나, 쌍용차 티볼리 등과 경쟁하게 될 기아차의 소형 SUV 스톤이 유럽에서 먼저 공개됐다. 기아자동차 유럽판매법인은 20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유럽 주요 25개국 기자단 및 오피니언 리더 6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신형 소형 SUV 스톤의 미디어 프리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아차가 소형 SUV 시장 경쟁이 가장 치열한 유럽에서 스톤을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한 것은 제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다. 이날 행사에서 기아차 유럽판매법인은 신형 스톤의 실차를 공개하고 1.6 디젤 등 예상 엔진 라인업, R&H 및 NVH 기술, 최첨단 안전·편의사양 등 주요 상품설명을 진행했다.

기아차 유럽판매법인 최고운영책임자(COO) 마이클 콜(Michael Cole) 부사장은 "신형 소형 SUV 스톤은 기아차의 품질, 디자인, 브랜드 자신감을 바탕으로 탄생한 차로, 유럽에서 가장 주목받는 차이자 기아차의 베스트 셀링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기아차 유럽판매법인에 따르면 B 세그먼트 SUV는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차급으로, 매년 110만대가 팔리며 전체 판매의 7%를 차지하고 있다. 2020년에는 B 세그먼트 SUV 판매가 연간 200만대에 달하며 결국은 C 세그먼트 SUV의 판매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스톤의 성공 여부가 기아차의 유럽시장 점유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유럽디자인센터와 남양연구소 기아 디자인센터의 협업으로 완성된 스톤은 2013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돼 찬사를 받았던 프로보(PROVO) 콘셉트카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됐다.

당시 콘셉트카 프로보는 기아차 특유의 젊은 감각과 역동적인 디자인에 고급스러움을 더한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iF, 레드닷과 함께 독일 3대 디자인상으로 평가되는 자동차 브랜드 콘셉트(독일 디자인 협회 주관)에서 최고상인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받은 바 있다.

공개된 디자인도 매력적이다. 속도감이 느껴지는 다이내믹한 실루엣과 전체적인 볼륨감의 조화로 SUV의 강인함은 물론 민첩함이 강조된 것이 특징이다. 인체공학적 설계를 바탕으로 세련미와 실용성을 강조한 실내도 운전자의 감성 만족도를 높여준다.

기아차 신형 소형 SUV 스톤은 유럽에서 3분기내 출시할 예정이며, 국내에서는 이달 말 공개 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한성원 기자 sereno@donga.com

이랜드그룹 "혁신의 시작은 상생부터"

상사 눈치 안보는 2주 휴가 사용독려
타운힐스, 지역·입주민 소통 신뢰쌓기

이랜드그룹이 '상생'이라는 이름으로 주목받고 있다.

우선 임직원 배려가 눈에 띈다. 최근 조직문화 7대 혁신안을 발표한데 이어, 그중 하나인 '2주 휴식 의무화' 정착을 위해 임원들의 여름휴가 일정을 먼저 확정해 전 직원이 2주 휴가를 사용하게끔 한 것. '2주 휴식 의무화'는 개인 연차와 대휴를 사용해 연중 2주간 집중 휴식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보장하는 제도다. 회사 측은 "여름휴가 기간이 다가오면서 2주 휴가에 대한 직원들의 기대와 문의가 많았으나 막상 휴가 신청은 상사 눈치가 보여 못할 것 같다는 피드백이 있었다"며 "임원들과 팀장급들의 휴가 일정을 공개해 2주 휴식이 빠르게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랜드건설 '타운힐스'는 지역 및 입주자와 상생을 추구 중이다. 지난 2015년 11월 김포한강신도시에 최고 경쟁률로 1순위 청약 마감한 브랜드로,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소통을 보이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편도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둔 김포제일고등학교와의 협력이 대표적. 김포제일고등학교



이랜드건설 '타운힐스'의 지역 및 입주자와의 상생 추구가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5일 입주예정자협의회와 함께한 식목행사 기념 촬영 모습.

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와 수차례 대화를 통해 '학습권 보장'이 최우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고,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자체적으로 소음감시조를 운영하며 법적 허용치인 65데시벨을 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시험 당일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중단하는 등 학생들의 수업 환경을 중심으로 공사 일정과 작업방법을 바꾸는 조치를 취한 것이 그 예다.

입주 예정자와의 소통도 눈에 띈다.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입주예정자협의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정보공유를 통해 이들의 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하고 있다. 지난 4월5일 식목일 식목행사를 열어 소통의 장을 연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랜드건설 측은 "건설사와 입주예정자 간 상생을 통해 단지 내 편의시설은 물론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바른 건설문화의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며 "특히 건설사와 입주예정자 간 신뢰는 그간 시끄러움이 끊이지 않던 건설문화의 새로운 롤모델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뉴스디자인 | 신하늬 기자

전국지사 및 가맹점주 100분을 모십니다.

미국 라이선스를 체결한 건강하고 맛있는 미국전통버거!!

49.5m²(15평형) 8,000만원

델리아메리칸
BURGER N' WING

델리아메리칸에서는
상권분석에서부터
인테리어 비용, 비품,
주방용 집기, 소품,
사인물 일체

델리아메리칸 만의 특징

- 01 미국 정통의 다양한 메뉴를 제공
- 02 30여가지의 미국 수제 Sauce공급
- 03 수제빵, 수제패티, 수제치즈
- 04 가맹점 개점까지 저렴한 개설비용
- 05 철저한 교육 및 운영매뉴얼 제공
- 06 합리적인 가격의 식자재 공급

We offer the best food services :
Fine Georgia hand-made Burger & Brunch,
Chicken wings & fried chicken,
30 different kinds of American sauces,
French Fries and more fries.
Fresh juice & Squash & Premium Coffee.

홍보영상
신문기사
인스타그램

유튜브 "델리아메리칸"
네이버 "델리아메리칸"
deli.american

가맹문의 1899-3602

www.deliamerican.com